

우리 모임에선



유불동 인환스님 초청법회

유니텔 불교동우회 서울경기지역 법우회는 20일 경복궁 옆 법원사 3층에서 인환스님(동국대 교수)을 초청해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인환스님은 법문을 통해 연합수계법회를 앞둔 회원들에게 계율과 수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전반야회 청계산 순례

한전 본사 반야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청계사에서 6월 정기순례법회를 열 계획이었다. 저녁예불로 시작한 이번 법회에서 반야회 회원들은 철야정진, 도량식 등을 하며 신심을 다지는 한편 토론의 장을 마련해 반야회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금용단불교련 옥·책 기증

전국금용단불교연합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수원시 장안구 '행복한 집'을 방문해 50여 만 원 상당의 옥과 책 등을 전달했다. 후원품은 4월 21일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금용단불교연합회 합동법회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구매했다.

철불협 23~24일 대표회의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송광사에서 철불협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9월 철도 불자 연합법회 봉행에 관한 건', '자비의 말씀 게시판 전국 주요 역사에 설치에 관한 건', '단체등록 준비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서울-경기 나우누리 바자

나우누리 서울경기지역 법우회는 23일 조계사 설립전에서 바자회 및 6월 정기법회를 실시했다. 이날 서울, 경기지역 나우누리 회원들은 108배, 참회 정진으로 법회를 봉행하고, 율해 초부터 모아 온 생활용품, 학용품 등을 전시 판매했다.

풍경소리 제52호 펴내

좋은 벗 풍경소리는 <풍경소리> 제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찬불동요 모음집 CD 출시', '불교음악 이야기',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등의 글과 여름을 주제로 한 '이달의 찬불가' 등이 게재됐다. (02)717-6985

'불자회 창립' 전국이 뜨겁다

전남경찰청 등 13개 경불회 탄생
대구 경전읽기모임 '수트라' 활동
부산 사진동호인 '서운암 들꽃회'
철도역마다 법우회 발족 서둘러

경주지역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의 요람이 될 경주시청불자회가 최근 창립(본지 323호 5면 참조)된 데 이어 광주, 부산, 서울, 대구, 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직장, 직능 불자회들이 속속 창립되고 있어 주목된다.

중으로 가득 차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13개 경불회는 전남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고아원, 양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하계 연합수련법회나 고승초청법회 등을 통해 불자 경찰의 신심을 다져나갈 것을 서원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초대 회장에 추대된 천승범 총경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남지방청 및 산하 관서의 경불회 창립을 유도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불자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3일 발족한 '서운암 들꽃 사진동우회'는 사진에 관심 있는

이밖에도 철불협은 경북 영주차량, 대전차량, 서울 영등포관리청 등 불자회가 없는 역사에 법우회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철불협은 23~24일 송광사에서 철불협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연내 창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조직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조직을 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철불협에 따르면 현재 경북 영주차량과 대전차량의 법우회는 창립 단계에 이르렀고, 영등포관리청에서의 법우회 창립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전남지방경찰청 및 산하 12개 경찰서 불교회는 16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전남지역 포교의 뜻을 올렸다. 사진=주동익 광주지사장



17일 수원 용주사에서 열린 제1회 경기지역불자회 합동수계법회 모습.

3백여 불자 '연비 재발심'

경기불자회 첫 합동수계

"은 허공 법계에 계신 부처님을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옵나이다."

17일 오전 10시 조계종 제 2교구 본사 용주사 효행교육관에서 수계를 청하는 불자들의 '청성(淸聲)'이 울렸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

"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서로의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게 아쉬웠다"는 경기도청 불자회가 두 달여 동안 각 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제 1회 경기지역 불자회 합동수계법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회에는 심한 가뭄으로 동참가 수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경기도청 공무원 불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화성, 의정부, 고양시를 비롯한 6개 시청 불자회, 세

기법우회, 경기도 경찰청 불자회, 경기도 약사 불자회 등 16개 기관 및 단체 소속 300여 불자들이 동참해 신심을 다잡았다.

이날 계사로 참석한 용주사 주지 정막스님은 "오늘이 자리에서 오계를 받는 여러분들은 작은 실천이 가져다주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에서의 5계 실천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수계의식에서 300여 불자들은 참회문과 연비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경기도청 불자회 이근홍 회장은 "경기 지역 불자들이 한 자리에 처음 모인 점이 뿌듯하다"며 "이번 합동수계법회를 계기로 올해 안에 가장 '경기도 불자 연합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종욱 기자

혈소판 환자에 후원품

광주생명나눔, 전남대병원 방문



힘으로 새 생명을 이라는 주제로 전개된 캠페인에서 모금된 100여 만 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후원품 전달식에서 석장스님은 "희망나눔"의 회원들은 소외된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돕는 자비행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불련 직지사 하계수련

한국교불자연합회(회장 영기영)는 27일부터 4일간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지도위원 석장)가 혈액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돕기에 나섰다.

광주지역본부는 13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마스크 등 1천500여 점의 후원품을 전달했다(사진). 환자의 치료비 및 혈소판 헌혈을 지원하는 광주지역 본부의 '희망나눔'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달된 후원품은 지난 5월 광주지역 5개 사찰에서 자비의

회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불련 하계수련대회는 아침예불, 발우공양, 도량참소, 좌선, 108참회 및 철야정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20-6618

게시판

알림

▲청소년 영화 상영회=양정청소년수련관은 30일 오후 3시 수련관 강단에서 '청소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영되는 영화는 '번지 점프를 하다'이며, 이 프로그램은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05)1868-0750

▲강화 갯벌 가족체험여행=본동중합사회복지관은 7월 22일 생태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갯벌체험 가족여행'을 마련한다. 강화도 갯벌과 숲을 둘러보며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이번 답사에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10,000원. (02)817-8052

▲사찰생태문화기행=광고항기림사는 7~8일 사찰생태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오후 2시 양재 서초구민회

관 앞에서 출발하는 이번 기행은 전남 화순 운주사를 방문,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찰을 보자는 의도로 마련됐다. (02)3672-5945

강좌

▲한식, 일식조리사 교육=낙동복지관은 한식조리사 실기반 및 일식조리사 특강반 교실을 개설했다. 한식조리사 실기반은 7월 23일부터 매주 월, 화, 수요일 오후 2시에, 일식조리사 특강반은 7월 26일부터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각각 개강한다. (02)335-7683

모집

▲경전연구반 수강생=능인불교대학은 경전연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낮반은 7월 4일, 저녁반은 7월 5일 시작해 12월까지 계속될 경전연구반의 개설 과목은 <유마경>, <금강경>, <화엄경>이다. 수강료는 4만

원. (02)577-5800

▲탁아방 자원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가정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탁아방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은 24개월-만 6세 유아 및 아동들의 놀이 지도 및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으로 주 1회 실시된다. (02)577-5800

▲교양 프로그램 도우미=자양사회복지관은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될 아동 및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 도우미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결실아동의 여름나기 프로그램인 푸른교실과 더불어 여름캠프, EQ향상, 중·고교생 자원봉사 등이 마련됐다. (02)458-1664

▲노약자 단기보호=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을 단기간 동안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보호 기간은 연간 90일 이내. (03)1455-0551

▲아동복지동아리 책동이 회원=구

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복지동아리 '책동이' 회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3년 아동으로, 매주 수, 토요일 두 차례 인포어린이도서관에서 독서지도 받는다. 30일까지 선착순 모집. (02)852-0525

▲장애인 자원봉사자=송가원은 장애인에게 찬불가를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3762-9870

이전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사무실 이전=대한전통불교연구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금강선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445-8484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nia.com

현오스님과 함께 하는 전생 체험과 위빠사나 명상수련 안내

<미안마 72일>과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의 저자 현오스님이 다년간의 수행과 실습 끝에 개발한 수련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최면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돌이켜 보고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그 실상을 일깨워 각자가 처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동참하셔서 많은 이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 도 : 현오스님 / 차차석(철학박사, 불교학 전공) / 임승택(철학박사, 위빠사나 전공)
일 시 : 2001년 7월6일~8일 (2박3일)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피라미트 명상원(033-732-4381)
회 비 : 10만원 (우체국: 200170-02-082157 유동금)
접수처 : 02)419-1253, 02)571-5413 (6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함)

주최: 大智전생연구회

첫째날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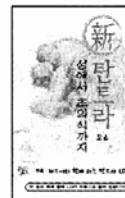
오후 2:00-집합, 인원 점검
2:00-일정소개 및 인사(현오스님)
3:00-오가
4:00-휴식 및 간담
4:30-불교 심리학①(차차석)
6:00-저녁식사
7:00-자유시간
8:00-위빠사나 강의(임승택)
9:00-최면 소개와 자기회면(현오스님)
10:00-취침

둘째날 세부일정

오전 5:00-오가 및 자비관
6:00-아침식사
8:00-위빠사나(임승택)
10:00-위빠사나 점검 및 간담
오후 12:00-점심
2:00-위빠사나(임승택)
4:00-불교 심리학②(차차석)
6:00-저녁식사
7:00-전생 최면 실습(현오스님)
9:00-전생 최면 점검 및 간담
10:00-전생 최면 각자 실습

수련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 승용차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문막 IC에서 간현유원지 방향→간현유원지로 들어가서 말고→좌측 다리를 건너 양평·안장방면으로
■ 대중교통
기차편 : 청양리역에서 중앙선(무궁화) → 양동역 하차 → 택시(대당 7천원) (통일호는 판대역 하차, 도보 10분)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에는 5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종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인간은 성행위의 절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 없음이 창조되고,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종교의 경험 안에서 '나' 또한 용해된다는 것을, 에고 또한 무(無)로 용해된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었는가? 오르가즘은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의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이것이 인간이 그토록 성을 갈망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그 갈망은, 한 여자의 몸을 향한 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에고 없음을 향한,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두 권의 책과 함께 CD가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부록: 피트니스와 함께 하는 탄트라(Tantra: A Partnership in Meditation) CD



지식론대로 따라 하는 이 명상법은, 성(性) 그리고 관계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연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입문서이며, 연인들을 교감(交感)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고대의 사랑의 과학(tantra)'에 근거해서 오소의 재자들이 카비사, 의학 박사 다얀 요기, 와두드 알바니에 의해 만들어졌고, 한국어로 대만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미르도 아난드(Anand)와, <New Frontiers> 잡지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든 표현되기도, 보여지기도, 그리고 느껴지기도 않았을 그런 무리익은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해 준다(65분).

www.goldenflower.co.kr /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도서출판 황금꽃

新 탄트라

성에서 초의식까지 오소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